새정치, 비례대표 국회의원 상향식 선출 추진

■ 당 혁신위, 공천개혁안 확정

공직 후보 공천시 '심층평가제' 도입

기준미달 현역 단체장·국회의원 배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28일 비례대표 후보를 상향식 선출로 정하는 내용의 비례대표 공천개혁안을 확정했다.

특히, 혁신위는 현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 공천에 '심층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청년, 장애인, 노동, 여성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당내 부문별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각 부문의 비례대표 후보를 각각 직접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현재 임명직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위원회에만 비례대표 후보 직접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향식 공천제도는 외부 영입 전문가 몫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별, 계층별 비례대표 후보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당원 규모를 최소 20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의원 공천의 민주성, 공정성과 세대, 계층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혁에 나선 것"이라며 "비례대표후보의 부문별 직선제는 당내 계파 간 나눠먹기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개혁안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전당대회 전까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 후보자 공천시 '심층평가제'를 도입, 기준에 미달한 현역 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 평가제가 도입된다면 현역 정치인들의 높은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방안을 놓고 혁신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모 혁신위원은 "개인적으로 현역에 대한 심층평가제를 지지하며 정치적 기득권 타파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혁신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큰 상황이어서 최종 결정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논란이 됐던 전략공천과 관련, 보다 투명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결정하기 보다는 특정위원회에서 전략공천을 결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올해 말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 민심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특성상 현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의 공천에 있어 심층평가제 도입은 상당한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혁신위가 당내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설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등산 군부대 이전 민·군 상생방안 검토"

국방장관, 권은희 의원에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사진) 의원은 27일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무등산 방공포대 무단점유에 대해 지적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전 문제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권 의원은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 8331부대(방공포대)는 전국 21개 국립공원내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대대급 이상 군 시설"이라며 "부대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 또한 전부 공유지와 사유지로 면적만 자그만치 21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군부대가 1966년부터 50년간 주둔하는 동안 무등산의 독특한 특징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인 주상절리가 훼손되었다"면서 "새로운 방공유도무기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공군이 작전성 검토를 거쳐 몇 군데의 대체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무등산 정상을 광주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광주시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상개방과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군의 상생방향이 무엇인지 입장을 가지고 상생 방안이 무엇인지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대통령, 이희호 여사 접견

이 "북한 방문 허락해달라"

박 "편하실때…기회 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접견했다.

박 대통령이 이 여사를 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접견에서 "통일에 대해 여사님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제가 듣기로 북한 아이들 걱정하면서 털모자도 직접 짜시고, 목도리도 짜시고 준비한다고 들었다"며 "북한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 정성,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여사는 "그래서 북한을 한번 갔다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여사님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그때 즈음에서 뵙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오늘에야 뵙게 됐다"며 "지난 5년 동안 여사님께서 김 대통령님 묘역에 일주일에 2번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찾아가 기도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5주기에 화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여사님께서도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 기일에) 조화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김 대통령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여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35주기인 지난 26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박 전 대통령 묘역에 처음으로 추모 화환을 보낸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취임후 첫 만남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세월호 3법' 처리 청신호

원내대표, 특검 후보 추천 유족 참여 등 상당 부분 의견 접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애초 약속한 이달 말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애초 합의한 대로 세월호 3법의 이달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안규백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됐으나 이견이 있는 부분도 꽤 있어 계속 논의키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법과 함께 쟁점이 됐던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 참여 문제와 관련, "세월호법이 합의되면 특검 추천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족대책위 측과 잠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과 함께 처리하고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추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이날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여야가 제출한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양당에 각각 설치한 태스크포스(TF) 활동을 각 당이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날 결정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 발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명' 출간 권노갑 상임고문

오늘 광주서 '저자와의 대화'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최측근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이 최근 출간한 본인의 회고록 '순명(順命)' 출판기념회에 앞서 광주에서 저자와의 대화를 갖는다.

권 고문은 29일 오후 2시 광주 충장서림 충장갤러리에서 '순명' 출판기념 저자와의 대화 및 팬사인회를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권 고문은 "출판기념회에 앞서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 등을 팬들에게 직접 들려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권 고문의 정치 역사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주변의 인사들에 대한 진면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권 고문은 지난 1999년 집필한 자서전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는 삶이 아름답다'를 2부로 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집필한 '진실은 하나다'를 1부로 엮어 이 책을 펴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K Petro 한국석유관리원

공공기관 매매

● 위 치 | 광주 광산구 도산동 1114
● 건 물 | 1,657㎡(3층)
● 토 지 | 2,076㎡
● 활용용도 | 요양원, 복지관, 유치원, 사무실
● 매 매 가 | 15억 6백 6십만원

☎ (062) 940-0612
010-4662-4313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법:백헌 학개론:임진택 공법:이강열 중개법:홍덕기 공시법:안규채 세법:임기원

개강 11月10日 주 부 반 11月~12月 기초과정 전 과목 강의 합니다. 성 인 반 직장인반 인터넷 동영상 수업은 무료

합격률 1위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 1위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 1위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3명 배출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합격을 위한 책임강의! 모르면 알때까지!
■기초과정 → 11月 ~ 12月 ■기본서Ⅲ → 5月 ~ 6月
■기본서Ⅰ → 1月 ~ 2月 ■문제풀이 → 7月 ~ 8月
■기본서Ⅱ → 3月 ~ 4月 ■총정리 → 9月 ~ 10月
※매월 1일은 정규 개강일 입니다.

광주새롬학원에서 제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 상담사 특강 (주·야)

• 학원 홈페이지 한글주소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창: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 행정고시학원 광주본원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2층 ☎361-8111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쑥쑥!!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 • 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창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혜택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 점 671-5000 주유소사업소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